

4. 고통가운데서 하나님의 신비를. . .

요한복음 9장 1-3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암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
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죄와 고통의 인과 관계?! . . .

악과 고통의 문제는 인류 역사를 통해 우리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문제입니다.
고통의 문제가 "인과관계"로 설명이 된다면 우리를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착하게, 선하게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잘되고 평안하며 고통이 없다면,
반면에 못된 사람들, 죄인들이 고통을 받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이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아닌가요?
문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 이러한 일을 경험
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지요.

그래서 많은 도덕가들과 지혜자들은 인과관계를 가지고 고통의 문제를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잠언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면 반드시 축복을 받으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 장 7절)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잠언 / 장 33절)

그런데 이러한 보편적인 지혜의 법칙이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문에 질문을 던진 것이 육기입니다.

육기 1장 1절에 나타난 육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스 땅에 육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
난 자더라"

보편적인 우리의 상식에 의하면 그는 무조건 잘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엄청
난 시련이 다가옵니다. 육기 1장 6-11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육에게 시련을 허락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지요.

"아, 그렇구나! 의인도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한에서 악한 세
력에 의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구나"

성경이 이렇게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이 우리를 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법칙을 용납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비 정상적인 법칙이 나에게 적용되는 일이라면 정말 우리를 견딜 수 없게 만들지도요. 또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지 않는다 해도, 나쁜 놈들이 고통을 받으면 우리가 외면할 수 있고, 나에게 책임 의식이 안 생기겠지만, 선한 이들의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아픔을 느끼게 하지요.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과의 법칙에 의하면, 나면서 소경된 자가, 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동의를 구한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암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인과의 법칙에 따라 죄로 인한 고통이라면 참으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동의를 구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입니다. 참 받아들이기 힘이 듭니다.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니 고통을 통해서, 그의 어려웠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나죄 177 슬픔의 불 가운데) 참고. 그래요 그렇게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는 의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고통이 오랫동안 나에게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계속된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아니 그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계획해 놓으셨다고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의문들. . .

우리의 인생가운데서 만나는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악'과 '고통'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악을 창조하셨는가?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악과 고통의 문제를 제어할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악과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아니,

만일 그 병이 선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을 통제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경험하는 악의 문제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가? 라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거스틴은 이 악의 문제에 대하여 가장 많은 고민을 한 사람입니다. 그의 결론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이 선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악은 '존재'가 아니라, "선의 결핍"으로 생기는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선해야만 하는 우리와 이 땅에 선한 영역이 줄어들면 악이 고개를 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악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이유와 의미를 설명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또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무차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하여 우리는 또한 당혹스러워 할 때가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에 있었던 엄청난 테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단지 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니 단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간에 그 곳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2005년의 쓰나미를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그 곳에 자연 재해가 일어나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었어야 했나요?

AIDS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잘못된 수혈로 인해 감염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그 피를 수혈 받았어야 했을까요?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를 당한 윤장호 병장을 생각해보세요. 간발의 차이로 함께 왔던 한 사람은 살고 그 사람은 남아 있다 죽음을 당해야 했을까요?

더욱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지만 유학생활을 통해 성공한 청년이요, 가정을 끔찍하게 아끼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들이었으며, 신앙을 가진 잘생긴 청년이었다는 사실이지요.

모든 생명이 귀하기는 하지만, 저 사람은 죽어도 괜찮겠다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의 죽음은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비행기가 추락을 했고 타고 있던 100 중에 99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1 사람이 날아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죽은 99명에게도 이 사건이 기적일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 걸까요?

혹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별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런 잘못된 일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문이 있습니다. 왜 무죄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결국 인간들의 죄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선과 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안겨 주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고통이 인과 관계에 있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인간 세상에 정의라는 것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자연의 반란으로 인한 고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설명에 동의하십니까?

조니 에릭슨 타다와 스티브 에스트는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책에서 고통과 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1969년 여름 스티브는 한 교회의 주차장에서 조니를 만났습니다.

조니는 전형적인 금발의 백인여성입니다. 2년 전만 해도 같은 또래의 고등학생들과 함께 놀며 가장 인기 있었을 그녀가 지금은 목이 부려져 장애인이 된 채 평생을 휠체어에서 보내야 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첫 만남에서 조니는 스티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목이 부려져 장애인이 된 것이 하나님과 상관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말해봐."

당시 스티브는 성경을 무척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니, 하나님은 너를 그 휠체어에 올려놓으셨어. 왜 그러셨는지 이유는 몰라. 하지만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유를 알게 될 거야. 이 땅에서 알지 못하면 천국에서는 알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의 목이 부러지도록 하신거야."

스티브는 그 말을 해 놓고는 자신 스스로 얼마나 진부하게 들렸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과연 이 말이 조니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조니는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 들였고, 그녀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입증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 책은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조니를 가장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은 전신이 마비되고 난 후, 누군가가 먹여주지 않으면 아무 것도 먹을 수 없고 밥을 먹을 때마다 질질 흘리는 추한 자신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을 수도, 코를 풀어 줄 사람도, 축축이 젖은 베개를 바꿔 줄 사람도 없는 병실에서 죽음을 생각했으나 스스로 죽을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내면에서부터 크게 소리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 주세요."

이제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해 나가게 됩니다.

과연 고통과 우리가 경험하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이 땅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상존하는 문제, "이해와 믿음 사이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1. 온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처럼 악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56.9%)
2. 착한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6.7%)
3.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아무 이유가 없다. 내 책임도 하나님 책임도 아니다 (5.6%)
4. 안 믿는 자에게 오는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4.2%)
5.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제거하시면 좋겠다. (26.6%)

그렇지요, 이 질문들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왜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느냐?"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공의로우시고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라고 말씀하는 데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당혹스러운 물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 이 세상에 이런 악이 창궐하는 것을 보건데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지 않으실 거야.

* 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닐 거야.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 고통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인가요?

먼저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무기력하기 때문일까요?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이 가졌던 질문도 바로 그런 것인지요.

하박국 1장 13절 말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쾌활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살기되 잠잠하시나이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즉, '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인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면 그 범위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지요.

여러분들 스스로 불의하지 않다고 생각하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큰 죄를 짓지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도덕적 실제적 죄에서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지구상에 나타나는 많은 재앙들에 여러분들이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하는 냉장고와 자동차가 그 주범입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즐기는 고기를 만들기 위해 나무들이 쓰러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심코 던진 한 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며, 오늘날과 같은 선거제도에서 여러분들이 투표한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도 여러분들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결국 그 누구도 온전하다 말할 자가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결국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심이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참으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날이 다가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고통의 문제를 넘어서. . .

그러면 성경은 우리들이 경험하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소경의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

다시 말하면 그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바울은 **로마서 5장 3-4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으로 이루는 중 암이로다.”

사도바울에 의하면 환난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역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성경은 ‘고통’ 그 자체보다 그 고통이 지니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주고 있으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신앙적인 접근이라는 말이지요.

C.S Lewis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느냐 질문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기 보다는, 왜 우리들 모두가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는가 라고 물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 가운데서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C. S. Lewis는 “우리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은 속삭이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부르짖으신다.”고 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윤장호 병장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며, 얼마 전 있었던 고속도로 사고로 인해 기도원에 갔다 오던 7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야 했던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성경말씀에 비추어 보건데,

고통의 문제를 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계획의 핵심과 궁극적인 관심은 현재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이나 가난, 무너진 가슴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 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축복을 향유할까? 등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천천히 구원의 열매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언젠가 변화산 기도회를 통해서 보았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시리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도,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편을 다섯씩이나 바꾸어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아니었다면 구원의 주님을 진실하게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를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먼 훗날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살아온 삶의 족적을 생각할 때 분명히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말씀,

그려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찌어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을 믿고, 고통을 받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필수과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고통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가 고통을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역시 이 땅위에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서 이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고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또 다른 의문이 생기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서 겪는 질병으로 인한 고난, 사고로 인한 아픔도 당연하게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인가요?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삶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잘못한 것,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고통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에베소서 기자는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죽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예술가가 르네상스기의 대 조각가인 미켈란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에 다가설 때 무엇을 보십니까?”

“아름다운 모습이 저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봅니다. 망치와 끌을 잡고 그것이 자유로워질 때까지 다듬어 내는 것이 간단히 말해 내 임무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망치와 끌을 대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 전신마비가 되었으나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삶의 의미, 그리고 자신과 함께 울으셨던 “하나님의 눈물”을 경험한 조니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망치질을 계속하신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 119: 67, 71). 내 몸이 마비되기 전 내 손은 많은 잘못된 것들을 찾았고, 내 발걸음은 나쁜 곳을 향하고 했다. 내 몸이 마비된 후 유혹에 이끌린 이 같은 선택들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우리 삶으로부터 죄를 세척해 내고, 우리가 그분 자신에게 헌신토록하고, 은혜에 의지하도록 하고, 우리를 다른 성도들과 하나로 묶고, 사려 깊고 민감하게 하고, 우리의 정신을 단련하시고, 우리가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게 하고, 우리의 희망을 넓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하고, 진리를 갈망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슬픔 가운데 감사하도록 가르치고, 우리의 믿음을 늘리고 우리의 성품을 강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하신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형상인가!

이 형상은 어떤 곳과도 닮지 않았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날 때, 그것은 유일무이한 조각이다. 조니에게서 볼 수 있는 인내, 자제력, 끈기, 온화함, 친절, 죄에 대한 건강한 증오심 등이 형상의 특징을 말해 조고 있다. . .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등뼈 마디에서 척추 신경이 차단되어 마비되는”고통과 똑같은 고통을 다른 사람도 겪을 필요는 없다.

망치질과 끌질에 우리를 내맡기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이다.’ 변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이다.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그 ‘누구’가 변화되는 것이다. 마치 점점 더 늘어나는 영광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형상처럼 말이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 .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후 3:16-18). . .

고통을 믿는 것은 막다른 죽음이며, 조각가를 믿는 것은 희망의 삶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렘 29:11~13)

아프게 망치질 하는 과정은 우리가 완전히 성스러워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성스러워질 가능성은 없으니 망치질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나의 전신 마비를 만성적인 상태로 받아들이는 이유이다. 내가 목을 다쳐 전신 마비가 되었을 때, 그것은 내가 신속하게 풀어 낼 수 있는 퍼즐이 아니었다. 곧 있으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잠깐 동안의 정신적 쇼크도 아니었다. 내 목을 다치게 한ダイ빙 사고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고 힘든 여정의 시작이었다. . . .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고통은 궁극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내게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 아픔이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 (롬 5:3) 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통이 쥐고 있는 악함보다 내 삶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조각품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싶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 올바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이 주는 유익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조각가’에게 주목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는 순간, 그 사랑이 우리는 덮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그의 책 [아주 특별한 사랑]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덮어 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고통을 가죽옷을 가지고 덮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덮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랑입니다.

고통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덮어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서 고통과 악을 허용하실 수 있나요?

마이클 프로스트는 그의 책 [일상, 하나님의 신비]에서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셀 수 없이 많은 눈길, 그것을 알아볼 눈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흔히 세속적인 영역과 거룩한 영역,

또는 악한 것과, 선한 것 사이를 구분하므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의 구분과 현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고통 가운데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지선아 사랑해”의 주인공이 부른 찬양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또 경험하는 고통 가운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정의하며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려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려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후 12:9)

세상 철학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인내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철학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즐길 수 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고통과 불행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고,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이 에콰도르에서 순교한 후 자신에게 처한 상황을 새롭게 정의 했습니다.

남편의 순교의 피가 더 이상 이유 없이 죽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말입니다. 남편의 죽음이 더 이상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죽음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도록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증명하기를 원하시나요?